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5. 1 + 2 vol. 131

당신의 출발점은 어디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2015년이라는 출발선상에 서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처음 그 다짐을 기억하며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일출은 대한민국 동쪽 끝 섬 독도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마음 속 간직했던 소원 하나씩을 잘 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청양띠의 해로 '靑'을 뜻하는 푸른 색은 진취적이고 매사에 빠른 속도로 임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양의 기운을 받아 뜻 깊은 2015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1+2월호에서는 건강한 한 살을 맞이하기 위해 연령별 건강관리를 살펴봅니다.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소아청소년의 시기별 건강관리를 비롯해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부인암 질환 3가지 그리고 남성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해에 다짐하게 되는 목표 중 하나가 건강관리입니다. 비록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시작을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두르기 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15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환자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충기

박충기



VOL. 131 | 2015 | 1+2

한양대학교의료원

SPECIAL THEME

2015년 건강한 한 살 맞이하기

소아청소년 · 여성 · 남성

건강한 한 살을 맞이하기 위해 연령별 건강관리 방법을 살펴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1+2월 호에서는 소아청소년, 여성, 남성의 건강관리 특성과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소개하며, 2015년을 활기차게 시작하려 합니다.



02 즐거운 편지 |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최동호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08 Love, Life | 2014년의 나눔을 기억하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합니다

SPECIAL THEME

2015년 건강한 한 살 맞이하기

12 튼튼한 성장을 응원하다 | ① 소아청소년

14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다 | ② 여성

16 육체의 노화를 극복하다 | ③ 남성



18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3D 모션 게임

22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영화 〈만추〉 속 금속 알레르기

24 베스트 파트너 | 편안한내과의원

26 Dr. Opera |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28 Dr. Movie | 웹툰에 빠진 대한민국

30 고마운 당신에게 | 17년 째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연을 맺고 있는 김인수 님

32 수퍼푸드 레시피 | 100가지 이로움을 품다, 마늘

34 Hanyang News | 유관기관 합동 소방 · 재난 대비훈련 실시 외

37 언론 속 한양인

38 발전기금

42 문화캘린더

43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5년 1월 1일 통권 131호 발행인 박충기 주소 133-792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http://www.hyumc.com> 기획 ·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90-9009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표가 이끄는 삶, 그 분명한 행보

최동호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열정의 근원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바로 “목표”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최동호 교수의 이야기다. 평생의 꿈인 ‘인공 간’ 연구의 초석을 다져 꼭 결실을 맺고 싶다는 최동호 교수는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삶의 모토로 오늘도 새로운 길을 내는 데 여념이 없다.

글. 이지연 사진. 정준택



경계 없는 대화의 시간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현실의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기도 하다. 전자를 열 때야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똑똑’ 문을 두드린 후 들어서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처음 보는 낯선 대상을 앞에 두고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풀어낼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최동호 교수의 교수실 문 앞에 섰을 때의 긴장감이 현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은 활짝 웃으며 진심으로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의 미소 덕분이었다. 예기치 못했던 반가운 맞이함은 시간을 두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잊게 만들었다.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해요. 담배는 원래 안 피웠고, 술은 조금 마셨는데 지난해 부정맥이 생겨서 끊었죠. 살도 좀 빼야 하는데 어디 따로 나가서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수술하고 집 중해야 할 때 힘이 달리니까 아예 교수실에 자전거를 갖다 댔어요.” 최동호 교수는 낯선 이에 대한 한 치의 거리감도 숨김도, 경계도 없이 술술 이야기를 풀어냈다. 4~5명 되는 작은 교수실 왼쪽에 실내용 사이클을 놓게 된 사연이며, 그 높이에 맞게 책상을 높여 때로는 서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 하루의 일과를 이곳에서 정리하고, 틈틈이 공부도 하며 강의 자료 등을 만들면서 수시로 자전거를 탄다는 그의 일상이 그림처럼 그려졌다.

외과 중에서도 간, 담도, 췌장 등을 수술하는 간담췌 분야 수술의이면서 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10년 넘게 해온 최동호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국립암센터, 존스홉킨스병원에서 간담췌 분야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타 병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모교인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몇 달 지나지 않은 지난 4월엔 ‘제11차 세계간담췌학회’에서 ‘무수혈췌십이지장절제술’을 적용한 사례를 담은 내용으로 ‘포스터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모교로 다시 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죠. 한편으로는 부담도 됐고요. 현재는 내년 초부터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할 간이식 수술에 대한 준비 책임을 맡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만큼 챙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 역시 새로운 도전이고 제게 주어진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클과 더불어 교수실 한구석에 세워둔 접이식 침대에서 일주일에 3~4번 쪽잠을 잔다는 최동호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과 맞닿은 지금이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힘주어 말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키워온 꿈을 현실로

구체적으로 ‘간’이라는 장기에 관심을 가진 의과대학생 때부터 외과 의사가 된 지금까지 최동호 교수의 최종 목표는 ‘인공 간’을 만드는 것이다.

“수술을 하다 보면 의사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수술을 잘 마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금세 재발된다거나, 의약품 개발이 미비해서 향후 치료방법이 확고하지 않는 등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병을 치료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 같아요. 제 연구의 최종 목표는 간 이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공 간을 만들어 간 이식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는 현재 제가 목표한 지점의 중간과정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모교로도 왔고, 교수도 됐으니 네가 하고 싶은 걸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직도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대답했다는 최동호 교수. 그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자기 관리에 열심인 이유가 이 한마디로 설명됐다.

올해 40대 중반인 최동호 교수가 의사의 꿈을 처음 품게 된 것은 재미있게도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경험하면서였다. 평소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개구리 해부 실험을 앞두고 직접 개구리를 잡아와 그 속을 들여다보는 일이 흥미로웠다고 고백한다. 남보다 일찍 꿈을 품어서일까. 최동호 교수는 외과의사로서 사는 지금의 삶이 무척 행복하다고 말한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게 제 삶의 모토예요. 전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만큼 외과의사는 병원 내에서도 3D에 속합니다. 주어

진 환경을 타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이곳을 최고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매사 임하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고 싶고요. 제가 매번 힘들어하고, 재미없어 하고 짜증을 낸다면 결국 제 후배들이 그 모습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최동호 교수 정도의 삶이 라면 외과의사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려고 해요.”

환자, 동료와 함께 걸어가는 길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기본적으로 10년은 해야 한다’는 철칙으로 외과의로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온 최동호 교수는 무수혈 수술 분야의 권위자가 됐다. 무수혈 수술은 환자 몸의 혈액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려 수술 시 수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가 꽤 까다롭다. 그러나 타인의 피를 수혈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환자의 면역력 증가와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익히 판단한 최동호 교수는 무수혈 수술 연구에도 10년 이상의 공을 들였다. 그의 이런 도전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들에게도 희소식이었다.

“그것이 공부든, 취미생활이든 최소 10년은 해야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아요. 연구 초반 3~4년은 막연하고 길이 잘 보이지 않다가 7~8년이 되면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확신도 생겨요. 지금은 정착된

무수혈 수술처럼 인공 간 연구 또한 지금은 초기 연구 단계지만 앞으로 10년, 또 10년씩 꾸준히 연구하다 보면 분명 길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제가 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그 길을 이어서 하겠지요.”

‘목표’가 있기에 힘이 들어도 일어설 수 있다는 최동호 교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에 앞서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흔들리면 환자들이 불안해하기에 언제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다잡는다는 그는 지난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보호자의 애타는 심정을 경험했고, 부정맥 시술을 받으면서는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이후로는 수술 방에 먼저 가서 환자를 맞이하고, 수술을 마치면 보호자들을 만나 작은 것이라도 이야기 해주는 습관이 생겼다. 동료와 함께 즐겁게 일하며 외과의로서 최종 목표인 인공 간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최동호 교수. ‘환자를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 인간을 귀히 여기는 삶의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목표가 이끄는 그의 행복한 여정을 응원하듯 마음 속 고개 하나가 그를 향해 정중한 인사를 건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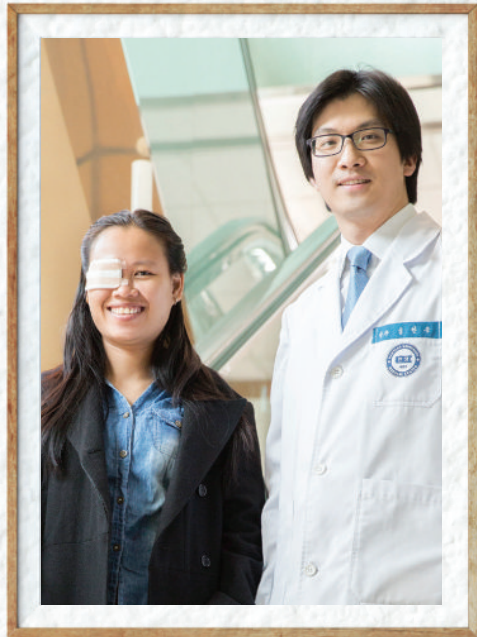
수술을 하다 보면 의사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최동호 교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최종 목표 역시 간 이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수술 방에 먼저 가서 환자를 맞이하고, 수술을 마치면 보호자들을 만나 작은 것이라도 이야기 해주는 습관이 생겼어요.”



2014년의 나눔을 기억하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합니다

2014년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전해 준 사랑과 나눔의 현장



여덟 살 때 못에 찔려 한 쪽 눈을 실명한 캄보디아 학생 유 짜끄리아(You Chakria) 씨에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한양대학교 동문사회봉사단 ‘함께한대’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따뜻한 나눔은 임한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교수의 의안 이식 수술로 완성되었다. 간호학과 학생인 유 짜끄리아 씨는 “앞으로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 전했다.

2014년 1+2월호 Love, Life

한양대학교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



성동구 어르신을 위한 건강축제



단양군보건소에서 무료 이동진료

소외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자선의료기관 ‘요셉의원’에서 15년째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김영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따라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 말한다. 병을 치료하는 것부터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마음 씀씀이는 정년 후에도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싶은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2014년 3+4월호 Love, Life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른 하늘과 신선한 강 바람이 2014 구리코스모스축제를 반겼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은 황금연휴를 반납하고 무료 진료소 준비에 적극 동참했고, 약 3천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건강검진부터 아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 그리고 ‘한양밴드’의 흥겨운 무대까지. 풍성했던 의료 봉사 현장은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했다.

2014년 11+12월호 Love, Life





매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 동문사회봉사단 '함께한대'는 캄보디아로 의료봉사활동을 떠났다.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참여한 의료봉사에서 하루 200명의 환자를 보듬으며 사랑을 전했다. 함께한대는 2015년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2014년 9+10월호 Love, Life



한양대학교병원은 1999년부터 지역의로 연계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역시 성동보건소와 연계해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순회진료를 진행했다. 무료 진료를 받은 김상용(72세) 어르신은 “눈이 침침해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백내장 증상이 있다고 알려줬다”면서 “안과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 진료도 받을 수 있어 무척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4년 지역의로 연계 순회진료



이주 다문화 아동 무료 건강검진 시행



매주 금요일 낮 & 매달 목요일 사랑의 음악회 개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행복한 봉사 콘서트 개최



사랑의 연탄기부 봉사활동

튼튼한 성장을 지원하다

① 소아청소년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소아청소년의 전체 인구비율은 줄어들었고, 경제적 수준은 높아지면서 감염병과 영양실조 등에서 비만, 성조숙증, 알레르기질환 등과 같은 선진국형 질환으로 전환되고 있다.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소아청소년기의 시기별 건강관리 항목을 살펴본다.

글. 이경석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시기 적절한 관리로 긍정적 효과 이끈다

소아청소년과 성인의 가장 다른 특징은 소아청소년기가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시기의 건강관리의 특징은 성장과 발달에 따라 연령대별로 특징적인 건강관리 항목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나 유치원 입학 전인 학동전기의 주요 질환은 주산기질환, 감염, 예방접종, 영양, 발달, 간질, 선천성 심질환이며, 학동기는 성조숙증, 저성장증, 비만이다. 청소년기는 비만, 저성장증, 알레르기질환, 척추측만증, 빈혈 등이 중요한 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은 적절한 관리가 행해질 경우 치료가 가능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다.

예방접종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4~6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출생 시 예방접종 수첩에 적혀진 일정을 따라 접종을 하게 되면 어려움 없이 아이에게 필요한 접종을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14년 5월부터는 폐렴구균접종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소아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직 국가 지원 대상을 받지 못하기에 의사와 상의하여 선택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결유지·손상예방·흡연·음주관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호흡기질환이 잦는데 대부분의 호흡기질환의 감염경로는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비말감염이다. 따라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안전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영·유아의 경우는 항상 보호자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머물도록 한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2013년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14.4%, 여학생은 4.6%에 이르렀다. 흡연의 경우, 금연구역 확대, 담뭍값 인상과 같은 사회적인 제재 외에도 이에 대한 해악을 인식시키고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비만 및 저영양증의 영양관리 비만아의 경우 같은 연령에 비해 사춘기가 일찍 올 수 있어 최종적으로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중압감을 느끼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혈압상승, 고지질혈증과 연관

될 수 있으며 성인 비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식습관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내분비, 유전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소아내분비나 소화기영양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저영양증은 최근에는 많지 않으나 편식이나 정신적 문제, 흡수장애나 대사질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에 소아소화기영양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내분비(저신장증, 성조숙증)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 저신장증의 기준은 같은 연령, 같은 성별의 어린이 전체에서 3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저신장의 원인은 1차 성장장애(염색체 이상, 유전 저신장), 2차 성장장애(영양결핍, 내분비질환) 등으로 다양하기에 단순히 성장호르몬제 투약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또 약물투약을 받더라도 성장을 관찰해나가야 하며 의사와 치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성조숙증은 남아의 경우 9세, 여아의 경우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중추신경계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 반드시 내분비의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알레르기질환 중 아토피피부염은 보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알레르기비염은 코막힘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기에 원인 알레르겐을 찾아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검진 만 6세 미만의 소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입학 이후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시기에 따라 발달 평가나 신체계측과 검진, 소변검사와 일부 혈액 검사를 시행하기에 건강할 경우에는 충분하나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감별하고 치료계획을 세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보다 자세한 종합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부모의 관심과 지도 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세 살 건강 여든까지 간다’로도 말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성장과 발달, 정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시기에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한 삶의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모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도해야 한다. 자기 결정권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다

② 여성

많은 여성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 중 하나가 산부인과이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외음부암, 질암, 융모막암 등 대부분의 부인암은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난소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자궁체부암.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대표적인 부인암 질환 3가지를 알아본다.

글. 배재만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특히 폐경 여성에서 질 출혈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질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있다면 자궁내막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자궁내막암인지 확인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자궁경부세포검사는 필수

자궁은 크게 자궁경부와 자궁체부로 나눌 수 있다. 자궁 입구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한다. 자궁경부암은 부인암 중에 가장 흔한 암이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인데 최근에 개발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도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대부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성 경험이 있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궁경부암에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선별검사가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자궁암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선별검사라고 할 수 있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말한다. 자궁경부세포검사는 성 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예방백신을 맞은 여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는 위음성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별검사를 통해 자궁경부암의 전암성 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발견될 수 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단계에서 발견하게 되면 원추절제술 등의 간단한 시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 통해 난소암 예방

난소는 난자를 만들어 내고 여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서 자궁 옆에 위치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에 이어 부인암 중 두번째로 흔한 암이다. 자궁경부암과 달리 난소암의 경우는 조기 진단을 위한 적절한 선별검사가 없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3기 이상 진행

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난소암 검사는 초음파로 난소의 종양을 확인하는 방법과 혈액검사를 통해 난소암 표지자인 CA-125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비정상적 질 출혈 시 초음파 검사 받아야

자궁체부암으로는 자궁내막암과 자궁육종 등이 있다. 자궁육종은 희귀질환으로 그 빈도가 매우 드문 반면 자궁내막암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자궁내막암의 경우는 비교적 초기에도 비정상적인 질 출혈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폐경 여성에서 질 출혈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질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있다면 자궁내막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자궁내막암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궁내막의 조직검사 방법에서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자궁내막 흡인생검, 자궁내막 소파술, 자궁경 등의 방법이 있다.

부인암 검사 당일 시행 가능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는 부인암에 대한 모든 검사를 당일에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이상 시 시행할 수 있는 자궁경부확대경검사와 냉동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질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당일 복부 CT 촬영도 가능하다. 또 외래 안에 소수술실이 갖춰져 있어 원추절제술과 자궁내막 소파술 등의 간단한 소수술도 수면마취 하에 당일 시행할 수 있다. 

육체의 노화를 극복하다.

③ 남성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커지는 전립선은 요도를 압박하여 원활한 배뇨작용을 방해한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이다. 대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데 특히 전립선암의 경우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화에 따른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글. 문홍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기과



요도를 압박하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며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정상 크기는 호두 알 정도이며, 방광의 아래 부분에 있고 전립선의 한 가운데에는 소변을 배출하는 요도가 있다. 사람의 신체조직은 나이가 들수록 대개 서서히 퇴화가 진행되지만,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면서 전립선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요도를 압박하여 배뇨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 상태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한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다양한 배뇨증상이 발생하는데,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소변 때문에 여러 차례 잠을 깨는 일이 생기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오게 된다. 커진 전립선 때문에 소변을 배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방광이 무리를 하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방광의 기능이 서서히 망가진다. 또한 추후 신장까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약물로도 치료 가능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대부분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로 조절이 가능하다.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방광이 동반되는 경우가 약 30~40% 정도이며, 이때는 소변을 참기 힘든 절박뇨나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기도 한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풀어주는 알파차단제,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증상과 진행을 예방할 수 있고, 과민성방광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항무스카린제를 사용하여 증상 조절이 가능하다. 약물로 증상 조절이 되지 않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방광 결석, 혈뇨, 급성 요폐, 신기능 이상 등)이 있을 경우 수술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술방법은 경요도 절제술이나 레이저 수술(홀랩 수술) 등이 있으며 개복하지 않

고 전립선의 비대해진 부분을 절제하여 좁으로써 배뇨증상을 호전시키고,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국내 남성암 증가율 1위, 전립선암

전립선에는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립선암의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동일하므로 본인은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전립선암은 항문을 통해 전립선 촉진 시 전립선에 딱딱한 부분이 만져지거나, 전립선암이 있을 때 상승하는 혈액 검사인 PSA 수치가 정상보다 증가한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된다. 초기 전립선암은 전립선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며, 이미 진행된 상태이거나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과음·카페인·육류를 피할 것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으로는 평소 주기적으로 온수좌욕을 하고, 과음을 피하며 카페인인 함유되어 있는 음료(커피, 차, 콜라 등)를 줄이고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한다. 과음은 소변량을 늘리고 전립선 내 근육을 경직시킴으로써 급성 요폐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량을 늘리고, 방광을 수축시켜 배뇨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전립선에 울혈이 생겨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경우 잠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좋다.

감기약 성분 중 배뇨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으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감기약을 처방 받기 전에 미리 본인의 상태를 담당 의사에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 마늘, 굴 등이 있으며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 전립선은 남성 모두에게 있는 장기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 질환의 발생도 비례하므로, 배뇨증상이 있는 중·장년층은 전립선 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

재미 두 배, 효과 세 배 모션 게임 재활 치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3D 모션 게임



아바타를 이용해 재활 가능성을 높인다? 일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SF 스토리처럼 들리는 이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엄연한 현실이다. 장성호 교수가 이끄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치료팀이 게임 전문가들과 손잡고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3D 모션 게임이 재활 치료의 새 장을 열고 있어 화제다. 글. 임지영 사진. 김상민

재미와 효과를 동시에 겨냥한 게임

뇌졸중으로 왼팔의 움직임이 불편해진 한 60대 환자가 게임기 앞에 선다. 작동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불편해 보이는 이 환자는 게임이 시작되고 스크린 사방에서 괴물들이 정체를 드러내자 열심히 이들을 막아내는 동작을 취한다. 느리고 어딘지 부자유스럽지만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다.

“한 달 정도 했는데, 처음엔 아예 돌아가지도 않던 팔이 이제는 한 걸 움직이기가 수월해졌어요. 별레나 괴물을 잡는 것도 수월해졌고요.”

이렇듯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특수 카메라 장치를 이용, 화면 앞에서 직접 스크린 속 주인공이 되어 몸을 움직이며 즐기는 체감형 게임이, 요즘 재활의학계 최대의 화두인 ‘모션 게임’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마비가 온 뇌졸중 환자들에게 한달 간 모션 게임을 맞춤 적용한 결과, 관절의 움직임이 30% 향상되는 등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인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Kinect)를 이용한 ‘모션 게임’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뎀스(depth)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렇게 구축된 이미지를 토대로 입체적 관절을 만들어 게임 속 아바타를 통해 자신이 의도한 움직임을 화면 속에서 실현하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동작을 인식하는 모션 캡처 기술이 들어간 게임을 재활치료에 응용, 반복 동작 때문에 싫증나고 포기하기 쉬운 재활치료를 모션 게임으로 보다 쉽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장성호 교수는 모션 게임과 재활 훈련을 접목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환자들이 실제로 단순한 반복 훈련보다는 별레를 쫓아낸다든지 괴물을 밀어낸다든지 하는 게임을 더 즐겨워합니다. 성공률이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것에 성취욕을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한 훈련 동기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순환을 일으켜 재활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게임을 이용한 치료 연구에 착수하다

게임과 치료,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분야를 결합한 모션 게임에 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 마침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게임인 키넥트(Kinect)를 개발, 출시했다. 게임마니아였던 장 교수는 평소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문득 ‘게임을 재활치료에 접목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 프로그래머 열기가 식고 게임이 점차 사형성 오락으로 치부되던 분위기 속에서, 장 교수는 게임에 대한 편견



을 깨고 과감히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단순한 동작의 반복인 기존의 운동은 환자의 끈기와 인내가 재활 치료의 성공을 좌우해 치료 효과가 더딘 환자들이 많은데, 지루한 운동에 ‘재미’를 더한다면 치료 효과가 높아질 거라는 예측에서였다.

초기에 이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실현하려 했던 연구팀은 곧 난관에 부딪혔다. 그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환자들은 어려워했다. 착오판단이였다. 20~30대 젊은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은 주로 60대 이상인 고령의 뇌졸중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였다. 환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연구팀은 환자의 연령, 상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용 게임을 개발하기로 결심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년에 걸쳐 기능성재활게임컨텐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게임 개발자, 카메라 제조업자, 환자,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보는 시각이 전부 달랐던 거지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3D 이미지를 벡터값으로 설명하면 의사들은 2D인 플레인으로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었으니까요.”

뿐만 아니었다. 애써 개발자와 의사들간에 접점을 찾아 합의가 이루어져도 환자들이 흥미를 못 느끼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도루묵이었다. 게임 개발은 몇 번이고 원점으로 되돌아갔지만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열쇠는 개발될 게임의 주체인 환자들에게 있었다. 연구팀은 뇌졸중 환자 오백여 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실행해가며 난이도를



조절해나갔다. 팔과 어깨를 고루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지구력, 순발력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환자들로 하여금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팬더가 던지는 볼공을 막거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몸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도 개발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난이도를 낮춘 게임들이었지만 고령의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게임이었다. 프로그래머와 의사들의 시각이 좀 더 배제되어야만 했다. 난이도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조금씩 더 낮춰졌고 마침내 연구팀은 아바타를 이용한 인공지능형 게임인 현재의 맞춤형 모션 게임을 개발했다.

맞춤형 게임으로 치료 효과 극대화

처음 의도했던 게임들보다는 훨씬 쉽고 단순하지만, 낮아진 난이도로 가용성이 높아진 만큼 환자들의 반응, 그리고 치료 효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현재 재활치료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푸글 마이어 지수를 이용한 측정, 반복 훈련, 그리고 모션 게임, 신체 움직임을 측정해서

사용이 불편한 부분을 집중 훈련시킨 다음 게임에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기존에는 단순한 반복 훈련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게임의 형태로 재미가 가미되니 효과도 그만큼 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게임 중 등장하는 괴물이나 벌레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쪽으로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식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동작을 취하는 환자의 팔의 각도까지 정확히 측정돼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맞춤형 게임이 개발되고 지금까지 약 300명 정도의 뇌졸중 환자들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모션 게임 치료를 받았다. 각각 ‘저리가 저리개’, ‘곤충잡기’, ‘뿌서뿌서’로 이름 지은 세 가지 모션 게임을 이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16.5퍼센트가 실제 치료 효과 증가를 보였고,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주목할 만한 삶의 질, 근력, 관절가동범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불편하다고 쓰지 않으면 오히려 기능이 퇴행하는 ‘불용성 퇴행’ 방지 효과도 두드러졌다.

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4주간 모션 게임 치료를 받게 한 실험에서도 일상 생활 동작은 물론 상지기능, 운동회복 정도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리햄마스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재활 게임의 치료 효과를 기록한 연구팀의 논문은 올해 SCI저널인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에 수록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재활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원격 모니터링으로 여는 토털 헬스케어 시대

원격 모니터링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운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션 게임 치료는 모니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환자의 보행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어 조만간 스마트폰을 이용한 토털 헬스케어 시대를 열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동물이기 이전에, 인간은 보다 원초적으로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호모루텐스’다. 인간의 본성인 오락추구 본능을 심분 활용해 삶의 질과 치료 효과를 모두 높인 모션 게임은 치료에 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아이디어,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의학과 놀이의 만남이 빚어낸 시너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기존의 재활 치료가 단순한 반복훈련에 불과했다면 3D 모션 게임은 재미가 가미되니 효과도 그만큼 배가된다고 볼 수 있어요.



Mini interview

원동분 님

“뇌졸중으로 왼쪽 편마비가 온지 만 12년이 넘었어요. 팔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운동에 소홀했었는데요. 마침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재활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죠. 10년 넘게 안 쓰던 근육을 쓰려다 보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게임으로 진행되는 재활 훈련이라 꾸준히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4개월 정도가 지나니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부드러워졌어요.”



김화숙 님

“뇌졸중을 앓은 지 8년쯤 되었어요. 혼자서는 운동이 잘 안 됐는데 모션 게임은 제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면서 운동을 하니가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게 되었죠. 재활 훈련은 본인 의지가 강해야 하는데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할거예요.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들의 질환에 대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고,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영화 <만추> 탕웨이의 금속 알레르기 자욱한 외로움 속으로 사랑이 스며들다



낮이 나간 표정의 여자가 인적 없는 골목을 뛰쳐나온다. 한참을 달리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왔던 길을 되돌려 다시 달린다. 돌아간 집 안에는 남편인 듯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다. 죽은 남자의 손과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허겁지겁 챙기는 그녀의 멍든 얼굴 뒤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그로부터 7년 후,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간 애나(탕웨이)에게 어머니의 부고를 알리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글. 곽한나 사진. SCS엔터테인먼트

“죄수번호 2357번, 시애틀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72시간의 특별 휴가를 얻은 애나는 시애틀행 버스에 오른다. 무심한 듯 차창을 바라보며 출발을 기다리던 중 한 남자가 버스에 뛰어 든다. 부잣집 사모님을 애인으로 두면서 돈을 받고 관계를 맺는 훈(현빈)이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혹시 30불만 빌릴 수 있어요?”
능청스러운 훈의 부탁에 내키지 않지만 30불을 내어준 애나, 둘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다. 시애틀에 도착한 훈은 자신의 연락처와 손목시계를 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애나는 차갑게 돌아선다.

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애나는 집으로 향한다. 형식적인 환대도

잠시뿐, 어머니의 묘비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는 가족들 속에서 애나는 감옥에서처럼 다시 혼자가 된다. 게다가 남편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그녀가 한 때 사랑했던 왕징(김준성)은 이미 아내와 아이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다. 이웃에서 만난 왕징은 어색한 인사와 함께 ‘그 때 그 곳에 다시 가려고 했었다’는 짧은 변명을 내뱉지만 끝내 사과는 하지 않는다.
하릴없이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는 애나는 쇼윈도에 비친 푸른 원피스에 시선이 머문다. 옷 가게로 들어선 그녀는 푸른 원피스와 화려한 귀걸이로 한껏 치장한다. 사랑 받는 여인처럼 다시 거리에 나온 애나, 기쁨도 잠시 휴대전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죄수번호? 위치는?”

“죄수번호 2357번, 시애틀입니다.”

자신의 현실과 마주한 순간, 귀걸이를 낀 귀는 심하게 가렵고 따갑기만 하다.

당신의 눈빛이, 손길아... 내게 돌아오라고 했어요

짙은 안개가 자욱한 시애틀 거리에 현재도 미래도 뿌연 모습을 지닌 애나가 다시 길을 걷는다. 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훈은 빌린 30불을 갚으며 애나에게 시애틀 도시 투어를 제안한다. 둘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도심 관광버스를 타고, 시장통을 달리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하루를 보낸다. <만추>의 클라이맥스는 애나와 훈이 놀이공원 범버카를 타다가 범버카 앞에 펼쳐진 거리 풍경을 보는 장면이다. 마치 영화 속 영화처럼 두 남녀가 등장하고, 애나와 훈은 무성영화의 변사가 되어 자신이 지어낸 대사를 두 남녀의 모습을 통해 전달한다.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감정과 진심을 담아내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다음 날, 애나의 어머니 장례식에 찾아온 훈은 애나의 가족과 왕징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가슴 속 깊이 베인 상처와 응어리를 풀어내준다. 72시간의 짧은 휴가가 끝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애나와 그 길을 동행하는 훈의 미래는 결국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영화 <색계>에서 파격적인 애정신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탕웨이는 영화 <만추>에서 사랑의 상처를 지닌 애나를 연기하며 탕웨이에 외엔 다른 여배우는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를 남긴다. 김형석 영화 칼럼니스트는 <만추> 평론에서 “뒤돌아 서서 그게 사랑이었나 가웃거리게 되는 감정이 아닌, 곱씹어 보아도 사랑이었네 탄식하게 되는 사랑이 여기 있다. 시애틀의 안개에 싸인 채”라고 전한 바 있다. 🍿

피부와 금속의 부조화 ‘금속 알레르기’

금속 알레르기란?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는 피부과적으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 금속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귀금속이나 장신구, 시계, 안경, 금속 버클이나 단추에 포함된 니켈, 크롬, 코발트 등의 금속이 피부와 반응하여 습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습진은 홍반, 비늘(인설)을 보이는 건조한 피부병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진물, 물집을 보이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짙은 노출로 치료가 어려워

원인 물질 중 니켈은 귀금속과 장신구에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스테인리스스틸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항원 양성률이 가장 높은 물질 중 하나로, 여성에게 월등히 많고 노출을 피하기 힘들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 원인 물질이다. 특히 젊은 시절에 귀를 뚫어 귀걸이를 하는 것이 니켈 민감화 증가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울러 휴대전화가 닿는 부위에 발생하는 피부염의 경우 니켈과 크롬이 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크롬은 남성에게 많으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직업으로는 시멘트 취급자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 고무공장, 페인트, 장식, 디젤 엔진, 유리공장, 인쇄, 전기, 절삭유, 용광로 및 제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 발생한다. 코발트의 경우에도 직업성이 대부분이고 합금, 도자기, 페인트 촉매제 및 도금을 취급하는 사람에서 발생한다. 수은은 현재 국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발생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과거에 피부탈색제에 섞여 피부 외용약 또는 화장품에 포함되었거나, 소독제로 머큐름 등에 흔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에 의한 접촉피부염의 경우도 가끔 보고되고 있다.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과의 재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이외에 현재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여느 습진성 피부질환과 동일하게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조절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사용이 있다.



고주연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베스트 파트너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보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암을 발견하는 것, 그 이상

편안한내과의원

두통이나 기침 같은 일상적인 증상이 몸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으레 동네 의원을 찾고, 병을 진단받게 된다. 그러나 동네 의원에서 감기와 같은 흔한 질환 대신 암을 진단받을 것이라고는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편안한내과의원은 검사 중심의 병원을 앞세워 조기 암 발견에 집중한다. 그리고 환자들의 안녕한 내일 그 이상을 생각한다.

글. 황원희 사진. 김상민

편안한내과의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80-4 ●문의: 031-771-0055

암 검진에 최적화된 의원

경기도 양평군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갖춘 의원이 등장했다. 2007년 3월 첫 진료를 시작한 편안한내과의원은 채명중 원장과 김연호 원장의 인연으로 탄생했다. 군의관 동기인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학회 활동을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공동 개원을 준비하게 되었다. 현재는 소화기내과, 가정의학과,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모여 각종 진료과목을 다루고 있다.

2층부터 4층까지 약 300평 규모의 편안한내과의원은 편안한 대기 공간과 전문화된 진료 공간으로 환자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상해 냈다. 진료실 중심의 2층, 내시경, x-ray 등 검진 검사실을 갖춘 3층, 최근 개원한 통증의학과와 물리치료실과 CT실로 구성된 4층까지. 시작부터 철저히 검사 중심을 염두에 두었던 편안한내과의원은 그 중에서도 특히 ‘암’ 검진 중심의 병원을 지향한다.

“양평군에서는 암을 잘 발견하는 의원으로 유명해요. MRI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미지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을 발견할 수 있죠. 2년 전에는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저선량 CT를 구입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암을 발견해 왔어요.”

채명중 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과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통해 편안한내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채명중 원장의 세심한 관찰력은 다른 무엇보다 환자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환자의 인생을 생각하다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직원들이 친절해요. 물론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의료환경이 열악하지만 아직까지 온정이 남아있다고 할까요. 환자 한 분의 마음이라도 위로하려는 열의가 있죠.”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까지. 약 23명의 의료진을 향한 채명중 원장의 칭찬이 마르지 않는다.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의료진의 마음은 편안한내과의원을 찾는 환자들과의 몸과 마음의 병을 동시에 치유한다. 그리고 치유의 힘은 협력 관계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도 전해진다.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이점과 함께 환자의 입원이 용이한 점은 서로가 좋은 동반자 관계를 증명한다.

“7년 전 심낭에 물이 차서 오신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심장이 축구공처럼 부풀어 올라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폐암 심낭 전이 진단을 받으셨어요. 보통 폐암은 크기가 엄청 큰데 그분은 특이하게도 암 자체는 크지 않고, 대신 전이가 빠르게 이루어진 경우였죠. 폐암 4기셨는데 환자분께서 항암치료는 거부하셨고, 다행히 진행이 느려서 현재는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의원을 방문하세요. 현재 78세이신데 폐병변이 커지긴 했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병원 규모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환자의 병을 조기에 발견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채명중 원장은 앞으로도 각종 암 진단에 집중한 계획을 밝혔다. 진단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편안한내과 의원이 생각해야 할 가장 우선 순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진단과 치료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감기로 방문하셨더라도 혹시 모를 암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나중에 돌아해보면 환자의 생명이 그리고 인생이 달려있는 순간이거든요. 저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에 조금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DR. OPERA

엷히고 설킨 사랑의 선율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Richard Wagner Opera <Tristan und Isolde>

“지금껏 저는 진정한 사랑의 행복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꿈 위에 이 작품을 높이 올리고자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한 정수로 가득 찬 악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장면에 휘날리는 검은 깃발로 몸을 두르고 죽음을 기다릴 것입니다.”

마틸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처럼 바그너는 사랑의 행복이 샘처럼 솟아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취리히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바그너는 실업자인 오토 베젠동크를 만나 그의 저택 근처 집에서 거처하면서 <라인의 황금>과 <발퀴레> 등을 작곡하게 된다. 베젠동크의 젊은 후처 마틸데가 음악과 문학을 바그너에게 배우게 되면서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풍부한 감수성과 뛰어난 문화적 소양을 지닌 마틸데는 바그너에게 영혼을 바치고 있었다.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속에서 마틸데를 이졸데로, 자신을 트리스탄에 비유하였다. 1859년 스위스 루체른에서 총보를 완성한 바그너는 1865년 루트비히 2세의 지원을 받아 뮌헨에서 초연하였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중세 독일 시인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의 서사시다. 그러나 바그너의 작품은 원작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직 주인공 두 사람의 내면 세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극의 전개는 극히 간단하며 등장인물도 적고 무대 장치도 단순 처리되어 있다. 대사 대부분은 사랑의 언어이며, 음악도 애욕의 감정 그 자체의 표현이다. 슈트라스부르크의 시에서는 사랑을 약의 힘으로 돌리고 있지만, 바그너는 약을 마시기 전 이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작품의 줄거리는 전개되지 않고 그들의 운명에 개입하지 않는다. 사건의 변화는 등장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오케스트라는 등장인물과 상황의 극적인 표현을 도와주고 있다. 제3막 전주곡에서 오케스트라 반주가 없는 잉글리시 호른의 긴 독주는 비탄에 잠긴 트리스탄의 모습을 나타내며, 독백을 하는 동안 오케스트라에 의해 더욱 발전된다. 클라리넷은 트리스탄의 배반을 덮어주려는 마르케 왕의 고통스런 고민을 표현하고 오보에는 이졸데와 연결되어 있다. 바그너는 이 오페라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도취를 표현하기 위해 실과 실이 엮여 천을 짜듯 선율이 조성을 잃을 정도로 엷히고 부풀어 오르면서 관능적인 쾌락과 황홀의 극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1막 트리스탄의 배 갑판. 아일랜드 공주 이졸데는 콘월의 마르케 왕의 조카인 기사 트리스탄을 따라 바다를 건너고 있다. **제1장** 이졸데는 과거 자신의 사촌오빠이자 약혼자인 모를드를 살해한 트리스탄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마르케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휘장을 걷으라고 명한다. **제2장** 휘장이 걷히자 이졸데는 배의 키 앞에 서 있는 트리스탄을 바라보며 시중을 들라고 명령하지만 트리스탄은 공주의 부름에도 키는 놓을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브랑게네가 왕비 이졸데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재촉하자 곁에 있던 쿠르베날이 트리스탄의 무용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선원들도 힘차게 화답한다. **제3장** 다시 휘장이 쳐지자 이졸데는 화가 나서 브랑게네에게 과거 트리스탄이 자기의 원수

임을 알았으나 치료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왕에게 바치려 한다며 트리스탄을 저주한다. 브랑게네는 이졸데의 어머니가 준 사랑의 묘약으로 마르케 왕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위로한다. 선원들이 배의 도착을 알린다. **제4장** 쿠르베날이 하선 준비를 하자 이졸데는 트리스탄이 먼저 사죄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고 한다. 이졸데는 브랑게네에게 독약을 준비시키면서 이별을 고한다. **제5장** 트리스탄이 들어오자 이졸데는 두려움 속에서 그를 바라본다.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다. 이졸데가 약혼자의 복수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자, 트리스탄은 칼을 주며 자신을 죽이라고 말한다. 이졸데는 브랑게네에게 독약을 가져오게 하고 트리스탄은 이졸데의 손에서 잔을 잡아채고 다 마시려 하는데, 이졸데가 다시 잔을 빼앗아 나머지 반을 마신다. 그들은 죽음을 예감하였으나 뜻밖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포옹을 한다. 육지에서는 나팔소리가 들리고, 선원들은 마르케 왕 만세를 외친다. 이졸데가 무슨 약인지를 묻자 브랑게네는 사랑의 묘약이었다고 답하고 이졸데는 의식을 잃고 트리스탄의 가슴에 쓰러진다.

제2막 콘월의 마르케 왕궁의 이졸데 방 앞 정원. **제1장** 밤 사랑을 떠난 왕 일행의 멀어지는 뿔피리 소리를 들으며 브랑게네는 오늘날 사랑은 멜로트의 계략이니 오늘날만은 트리스탄과 밀회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이졸데는 자신이 직접 햇불을 끄고 트리스탄에게 신호를 보낸다.

제2장 트리스탄이 달려와 이졸데와 격렬하게 포옹하며 영원한 밤과 죽음을

칭송하고 이대로 죽기를 소망하면서 이중창 ‘사랑의 죽음’으로 오르가즘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제3장** 이때 쿠르베날이 위험을 고하고 마르케 왕과 멜로트가 들어와 두 연인들을 보고는 놀란다.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당한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겨 괴로워한다. 화가 난 멜로트가 트리스탄에게 덤벼들자 그는 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

제3막 브르타뉴 카레울에 트리스탄의 성. **제1장** 양치기 피리 소리에 나무그늘 아래 잠들어 있던 트리스탄이 깨어난다. 쿠르베날은 트리스탄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졸데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말한다. 트리스탄은 이졸데를 태운 배가 접근해 오는 환각에 사로잡혀 고통을 호소하면서 실신한다. 이때 양치기의 피리 소리가 들려오자 쿠르베날은 망대에 올라가 이졸데의 배를 확인하고 항구로 달려간다. **제2장** 트리스탄은 기쁨에 넘쳐 노래하며 힘있게 일어나자 이졸데가 트리스탄을 부르며 들어온다. 트리스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이졸데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이졸데”라고 외치고 숨을 거둔다. 이졸데는 트리스탄을 붙들고 절규하다가 그의 위에 쓰러진다. **제3장** 마르케 왕의 일행이 밖에서 성문을 열라고 소리친다. 적의 습격으로 오해한 쿠르베날은 멜로트를 찔러 죽이고 마르케 왕의 병사들과 싸우다 트리스탄의 곁에서 죽는다. 그러나 왕은 브랑게네의 고백을 듣고 조카와 아내 사이를 용서하고 두 사람을 맺어주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브랑게네가 이졸데를 품에 안아 일으킨다. 트리스탄의 입김이 노래가 되어 세상에 가득 찬 거룩한 음악의 파도 속에 빠져들면서 서서히 막이 내린다. 

들을만한 Album



볼프강 빈트가센(트리스탄), 브리기트 Nilsson(이졸데), 칼 뵘(지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페라(DG, 1966)



존 버커식(트리스탄), 헬가 테르네슈(이졸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DEM, 1971)



르네 콜로(트리스탄), 마가렛 프라이스(이졸데), 카를로스 클라이버(지휘), 드레스덴 슈타카펠레(DG, 1990)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재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 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DR.MOVIE

웹툰에 빠진 대한민국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아이돌로 눈을 돌리다



만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대략 이러했다.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글 자수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그림과 말풍선으로 채워 넣고, 현실세계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군데군데 찢겨진 채 밥풀과 음료수로 뒤범벅된 대여점 한 칸의 빛 바랜 서적.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 도서관에서 읽거나 직접 소장하기에는 왠지 눈치 보이던 어둠의 자식들은 탁월한 일부 작가의 힘에 의해 양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 고서의 재해석, 한국 고대사의 재조명, 음식에 대한 미시적 접근, 혹은 세계 문화와 풍속을 총망라하여 흑백이 아닌 화려한 칼라로 채색되어 양질의 단행본으로 꾸며진 만화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면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다.

이윽고 예견된 순서처럼 게임, 드라마 등의 연관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지만 영화에 이르러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초기에는 만화와 똑 닮은 캐릭터를 내세우거나 도약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내세우려 했지만 영화는 만화적 상상력이 가지는 단점 역시 극명히 드러나는 매체이기 때문에 상상이 현실과 만나는 접점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들은 비현실적 서사구조란 죄명으로 외면 받고 말았다. 2003년 인터넷의 대형 포털 사이트에 등장하기 시작한 웹툰은 플래시와 음향을 사용하면서 종이라는 형식의 제한을 뛰어 넘어 무너지던 종이만화를 조금씩 대체하게 되었다. 웹툰 작가는 일방통행의 텍스트 매체에서 인터랙티브한 인터넷으로 동지를 옮긴 사람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그리고 아직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영향력을 확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단편작이던 **〈다세포소녀〉**를 무리하게 하나의 줄거리로 묶아 매려던 2006년 웹툰의 첫 영화 시도는 비참하게 끝을 맺었다.

2013년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흥행성공은 다소 의외이다. 동시에 개봉한

많은 블록버스터의 틈새에서 예상외의 행보를 거듭한 요인은 원작의 탄탄한 구조나 섬세한 배경설명 및 감정선의 흐름을 생략한 채 꽃미남 주인공들이 벌이는 액션과 이해하기 어려운 눈물샘에 열광하는 팬덤 문화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분량의 원작을 2시간 남짓 압축시킨 영화는 왜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미국 드라마의 인기를 영화화에 쉽게 써먹지 않는지 설명해 준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왜 굳이 바보행세를 하는지, 왜 길에서 배변을 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무시업을 할 때 드러나는 복근과 비 맞으며 흘리는 눈물 몇 방울이면 ‘그’가 있기에 충분하다. **〈전설의 주먹〉** 역시 케이블 TV ‘주먹이 운다’의 포맷을 차용하여 40대 가장의 마지막 승부를 그려내고 있지만 식상한 결말은 휴먼 액션이라 명명된 명불허전 격투기의 체취를 그나마 퇴색시키고 만다.

독창적인 그림체를 탄탄한 줄거리로 만화하는 강풀 작가는 웹툰의 최강자 중 하나이다. 현존하는 전직 대통령 제거라는 불경스러움을 구현한 **〈26년〉**은 시대적 흐름과 절묘하게 맞닿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자아냈다. 편집된 과거를 잊지 못하며 아직도 거짓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리라. 노인의 획일화된 관점이 아닌 보편 타당한 인간의 시점에서 사랑을 설파한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달동네 언덕과 보름달이라는 상성과 하강, 끝과 새로운 시작의 은유를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서 녹아내면서 인생은 변화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간다고 말한다. 작가 자신이 원작과 너무도 달라졌다고 말한 **〈순정만화〉**는 결국 2차원에서 3차원 매체로 변하는 시점의 정서를 포착하지 못했음이 패착임을 실토하지만 키스 장면 하나 없이도 연애와 사랑의 차이를 조용히 알려주고,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추억의 조각에 매몰되었다가 현실로 빠져 나온 여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심오한 에세이를 선사하는 윤태호 작가의 **〈이끼〉**는 음과 양, 선과 악의 양면

성을 가지는 인간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빛이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이끼는 양지가 되면 사라진다. 감독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 결국 스릴러 영화가 되었지만 마을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명의 악당 사이의 다툼과 그 부산물은 이끼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을 만하다. 바둑의 한 수를 짚막한 인생의 잠언으로 소화해 낸 **〈미생〉**은 드라마이지만 영화 못지않은 감동과 현실감을 선사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생활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실감나게 묘사하여 직장생활에 기적, 환상, 우연은 개입될 수가 없다는 생생한 진리를 연기자들을 통해 매 회, 한 두 마디의 명언으로 재생산해내고 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남은 상태도 아닌 미생(未生)은 완성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바둑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깨 처진 임시직들의 비상을 암시할 수도 있다.

88만 원 세대를 연기는 장그래 역의 임시완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감내해야 하는 피상적이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철새와 같다는 대중의 힐난을 가볍지 않은 몸짓으로 묵묵히 이겨내고 있다. **〈변호인〉**에서 보여준 깊은 눈매와 지난한 몸짓 연기는 그가 TV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라는 사실을 잠

시나마 잊게 만든다.

원래 우상(偶像)을 뜻하던 ‘아이돌(idol)’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십대가 숭배하는 가수’란 의미가 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다년간 연예기획사에서 혹독한 연습생 훈련을 받고 가요계에 데뷔했던 10대 중후반의 ‘아이들’은 인디 음악을 하는 가수와는 달리 성공 자체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할 것이며 편안한 가정, 진정한 친구와 학창시절을 혹시 펼쳐질지도 모를 밝은 앞날과 담보해야 하기에 스스로 ‘아이돌’이라 규정짓는 아이러니를 보인다. 때를 지어 가요계에 데뷔한 그들이 홀로 뮤지컬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활동무대로 넘어가는 시도는 몸과 이름을 파는 자본주의의 최정점에서 보면 일종의 노후 보장책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영화의 흥행 성공에 있어 거미줄처럼 얽힌 프레임이 모두 완벽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스타 연예인 한 명의 티켓파워가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니 그대 ‘아이돌’이여, 스타가 아닌 진정한 배우로 기억되길 바란다면 연기에 빠를 말고 이 길 이외에는 절대 한 눈을 팔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주길 빈다. 인기는 짧으나 연기는 오래 간다는 것과 인생은 한 우물을 파는 자의 것이란 것을 잊지 마길 바란다.

볼 만한 Movie



이끼(2010)
감독 : 강우석
출연 : 정재영, 박해일, 유준상, 유선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감독 : 추창민
출연 : 이순재,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



변호인(2013)
감독 : 양우석
출연 : 송강호, 김영애, 오달수, 임시완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사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17년째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연을
맺고 있는 김인수님의 편지

누구나 한번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그
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희
망을 찾기도 한다. 버거씨병의 고통으로 삶의
희망을 잃었던 김인수님은 한양대학교구리병
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그에게 한양대
학교구리병원 박원경 교수는 암흑 같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비춰준 은인이다.

정리. 황원희 사진. 김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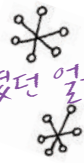
고마운 박원경 교수님께

1995년, 처음 버거씨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좀처럼 잠을 정할 수 없던 터
라 진통제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러던 중 1998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
에서 박원경 교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환자이기 이전에 가족처럼 편히
대해주셔서 심적으로 크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약 3년 정도 교수님께서 해리 연수를 다녀오신 후에는 제가 교수님의 첫 번째 임상시험 환자가 되면서 더욱 믿고 의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임상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을 믿었기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첫 임상시험을 끝
낸 다음 날 아침은 몇 달 만에 맞이하는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겪은 통증 없는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많은 병원을 다녔었지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곳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박원경 교수님의 따뜻한 보살
핍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던 저를 위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목실 전로사님께서는 병원에 지원을 위
해 노력해주셨습니다. **살을 포기하고 살을 정으로 돌과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에 이 두 분께서 저에게 새로운 살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2003년 여름이었고, 그 뒤로 계속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신앙의 힘으로 봉사라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제 **살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
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제가 속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음악으로 보답을 드리자 결심했습니다.
2014년 구리코스모스축제를 방문해 직접 색소폰을 연주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시절, 제가 느낀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항상 찡그렸던 **얼굴에 웃음을 찾아준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을 보내며
김인수 드림



김인수님께



김인수님이 앓고 계신 버거씨병은 원발한 혈액 공공을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오기 전부터 양쪽 발에 버거씨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
셨지만 예후가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리연수를 다녀온 후 김인수님께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의 임상시험을 권유하였고, 많은 고민 후 승낙하셨습니다. 각고의 준비
끝에 세포치료를 시행했고, 병을 당장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김인수님의
아픔을 덜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모습, **남에게**
봉사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감사함을 느끼고, 보답아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몸 관리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경 드림





100가지 이로움을 품다 마늘

한 가지 해로움과 백 가지 이로움을 가진 마늘은 특유의 강한 냄새를 제하고는 뛰어난 효능으로 건강 식품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사실 한 가지 해로움으로 거론되는 마늘의 강한 향 역시 음식의 비린내를 없애고, 식욕을 북돋아 한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늘의 백 가지 이로움을 알아본다.

글. 황원희 도움말.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교수, 강경화 한양대학교병원 영양사

모든 질병을 아우르는 마늘의 힘

미국국립암연구소는 최근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항암 음식 48가지를 발표했다. 그 중 마늘은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특유의 향과 매운맛으로 선뜻 다가가기 힘든 마늘은 그 효능을 알고 나면 가까이 두고 섭취해야 할 필수 음식이 된다. 마늘의 가장 큰 특징은 항암 작용과 혈관질환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마늘의 매운맛은 마늘을 대표하는 알리신(Allicin) 성분 때문인데, 이 알리신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배출을 촉진해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이끌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마늘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 연쇄구균, 대장균, 비브리오균 등과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까지 없애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타임>지는 마늘 속 알리신이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 다양한 유황화합물질이 들어 있는데 피로회

복, 정력증강에도 효과적이며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돕는다. 그 중 메틸시스테인(Methylcysteine)은 간암과 대장암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마늘은 비타민 C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B가 들어 있으며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셀레늄 등과 같은 다양한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다.

마늘을 선택할 때는 윤기가 흐르고 알이 단단한 것, 표피가 담갈색 또는 담적색으로 쪽수가 적고 짜임새가 단단해 보이는 것, 겉껍질과 속껍질의 부착이 강한 것, 고유의 매운맛이 강한 것, 줄기와 뿌리가 제거되고 외피의 건조상태가 양호하며 흙 등 이물이 묻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늘을 구우면 매운맛이 사라져 섭취가 쉽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된다. 공복에 먹으면 위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너무 과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무리를 줘서 눈이나 몸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하루 기준으로 두세 쪽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다.

한편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는 알릴 메틸 황화물(Allyl methyl sulfide)이란 혼합 물질이 소화되지 않고 호흡과 땀으로 배출되면서 나는 것인데 마늘을 먹은 후 우유 한 컵을 마시면 알릴 메틸 황화물이 50%까지 줄어 마늘 냄새가 완화된다고 한다. 🍷

정진환 신경외과 교수가 추천하는 수퍼푸드

한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은 김치이다. 그리고 김치의 맛을 책임지는 양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늘이다. 마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며 식욕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마늘이 몸에 좋은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항암효과이다. 미국국립암연구소와 중국상하이암연구소 연구 결과 마늘이 전립선암 발병의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위암과 대장암의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마늘에는 단백질, 지질, 섬유질, 칼슘, 철, 비타민 A와 같은 주요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으며, 마늘의 대표적인 유효성분이며 강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는 알리신이 몸 속에서 알리신으로 변하여 비타민의 작용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성 물질로 세균성 식중독 유발 원인균에 대해 강력한 살균력을 발휘한다.

마늘꼬치 구이

재료 : 삼겹살 50g, 소고기 안심 50g, 베이컨 50g, 통마늘 20개, 대파 1줄, 떡 50g, 꼬치 6~10개, 소금, 후추, 간장 소스

만들기 : ❶ 삼겹살과 안심은 꼬치에 꽃기 좋게 썰어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 놓는다. ❷ 대파 또는 종파를 통마늘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 놓는다. ❸ 재료를 순서대로 꽃는다. ❹ 예열한 오븐에 꼬치를 넣고 200도에 10분 굽는다. ❺ 접시에 꼬치와 소스를 담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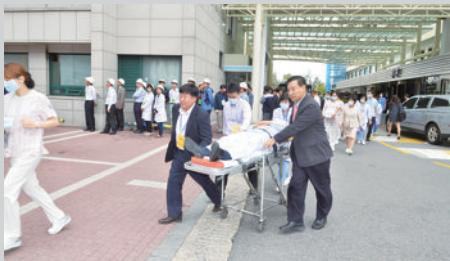
마늘새우 샐러드

재료 : 통마늘 3통, 칩otle새우 100g, 샐러드용 야채, 방울토마토 50g, 오리엔탈 드레싱

만들기 : ❶ 통마늘과 새우, 야채, 방울토마토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 한다. ❷ 통마늘은 편 썰기 하여 달걀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후 노릇하게 굽는다. ❸ 같은 팬에 새우를 재빨리 볶아낸다. ❹ 접시에 채소와 방울토마토를 담고, 마늘과 새우를 얹은 후 드레싱 소스를 뿌린다.

한양대학교병원

유관기관 합동 소방·재난대비훈련 실시



본원은 지난 10월 22일 화재와 지진발생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광진소방서, 한국전력, 에스코, 성동보건소, 성동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방 및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력과 상호 공조를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본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10월 28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신장이식에 관심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의 '신장이식 전 검사', 신장내과 강종명 교수의 '이식 후 임신과 건강관리', 감염내과 배현주 교수의 '이식환자의 감염관리와 예방접종', 피부과 김정은 교수의 '이식 후 피부 합병증 관리', 내분비내과 박정환 교수의 '이식환자의 당뇨관리', 영양팀 엄기숙 영양사의 '이식 후 영양관리', 약제팀 김미진 약사의 '이식 후 투약관리'를 주제로 다뤘다.

'뇌졸중의 날' 기념 건강강좌

본원은 지난 10월 29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뇌졸중의 날'을 맞아 환우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신경과 김영서 교수가 '뇌졸중의 증상과 치료'를 주제로 뇌졸중 예방, 전조증상, 치료 등에 대한 강좌를 진행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단양군과 의료협약 및 무료 이동진료

본원은 지난 10월 30일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단양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이동진료도 실시했다.

암센터, 제1회 심포지엄 개최



암센터는 지난 11월 22일 의과대학 본관 6층 TBL실에서 암센터 조직 개편을 기념하고자 '제1회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은 '노발리스 TX'를 주제로 방사선 종양학과 이명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방사선종양학과 전하정 교수가 '노발리스 TX 치료의 이득',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가 '뇌종양 및 기능성 질환에 대한 노발리스 TX의 치료 효과', 인제대의 신경외과 손문준 교수가 '척추 및 척수 병변에 대한 정위적 방사선 수술의 치료효과'를 주제로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최소 침습 암 수술'을 주제로 외과 권성준 교수와 흉부외과 정원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비뇨기과 이준용 교수가 '로봇복강경 수술의 최신지견', 신경외과 고용 교수가 '뇌종양 미세침습수술',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가 '두경부종양에서 로봇수술의 최신지견', 산부인과 최준성 교수가 '산부인과적 수술의 미세침습수술', 외과 최동호 교수가 '간담체장암의 치료의 새로운 수술 기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러시아식' 전시회 개최

본원은 지난 11월 21일 러시아 환자들의 편안한 치료환경 제공의 일환으로 러시아인의 입맛에 맞는 식단을 소개하는 '러시아식' 전시회를 국제병원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러시아 등 외국인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식문제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나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성동구 의사회 송년의 밤' 개최



본원은 지난 11월 28일 동문회관에서 '성동구 의사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는 '노년의 건강', 성형외과 윤진호 교수는 '비만의 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했으며, 화합을 위한 만찬의 자리도 마련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우리아이 눈·코 건강'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구리 롯데백화점 9층 문화센터에서 안과 임한웅 교수의 '우리아이 눈 건강'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에는 이비인후과 정진혁 교수의 '우리 아이 코 끝이 치료 필요하냐'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만성통증·심장질환'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통증의학과 심재항 교수의 '만성통증의 치료'를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11월 7일에는 심장내과 신정훈 교수의 '고혈압과 심장병'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제1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31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1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말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병원발전에 공로가 큰 교직원 10명에게 '모범직원상'을 수여했다. 소화기내과 유교상 교수가 '총장상', 영상의학과 신상욱 전공의(R4), 간호국 유고는 계장, 재무팀 김남기 계장이 '임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 간호국 박경진 계장 외 5명이 '병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한 해 동안 병원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의료진에게 주어지는 '한양교수 홍보상'에는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 안과 강민호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권순찬 교수가 선정됐다. '우수병동상'은 5층 병동, '우수검사실상'은 진단검사의학과, '우수부서상'은 의료정보팀이 수상했다.

이주·다문화 아동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본원은 지난 11월 6일과 20일 본관 지하 1층 건강검진센터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의료한 이주·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이날 무료 건강검진은 x-ray촬영, 혈액 및 소변검사를 비롯한 기본 건강검진과 독감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문제행동스크리닝검사(CBCL, ADHD, 소아우울설문, 온라인중독평가 등), 안과 굴절 및 사시검사 등이 진행됐다.

지역 영유아 위한 안과 무료검진 및 건강강좌 개최

안과 조희운 교수팀은 지난 11월 11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세계 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구리시가 주최한 '눈 건강 아이플러스' 행사에 참여해 무료검진 및 특강을



실시했다. 사전 신청자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눈 검진과 조희운 교수의 '눈에 좋은 음식', 임한웅 교수의 '아이성장'과 '눈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영상의학과, 따뜻한 이웃 나눔 실천



본원 영상의학과 직원들이 지난 11월 1일 병원 인근의 어려운 이웃에 가구당 연탄 200장과 내의, 구급약품 및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은 구리시청 무한돌봄과에서 10가구를 추천 받았다.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본원이 최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외국인 환자에 특화된 우수한 진료시스템을 인정받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본원은 2003년 개원 이래 '해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최우수 의료기관' 등으로 선정되어 한국의료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배상철 교수팀, 한국인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에 개인별 유전형 예측 가능

배상철 교수팀이 한국인의 조직적합성항원 유전형과 이미노산 서열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인 HLA 기준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6종의 HLA 유전자(A,

B, C, DRB1, DQB1, DPB1)에 존재하는 약 230개의 유전형과 이미노산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특히 한국인의 개인별 HLA 유전형 예측 시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된 이번 연구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 11월 14일자에 발표되어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인사, 동정

문홍상 교수, 대만 학회서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기과 문홍상 교수는 지난 9월 1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학회에서 'Novel medical devices in urologic field'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Advances in microfluidics and nanofluidics' 학회에서 Biomicrofluidics 저널이 정한 '2013 best paper award'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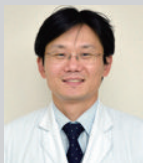
김태업 교수·정승준 전공의, 대한간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업 교수와 정승준 전공의가 지난 10월 27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린 제

20회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Changes in the seroprevalence of IgG anti-hepatitis A virus between 2001 and 2013: experience at a single center in Korea'란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오재원 교수 '제2회 KMA-HUMC Joint Seminar'서 주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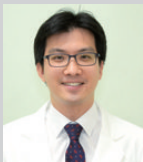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지난 10월 31일 동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국립가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제7회 생명기상 전문가 워크숍과 '제2회 KMA-HUMC Joint Seminar'를 주최하고, '국내 꽃가루 알레르기 네트워크: 관측망 운영과 환자증상자수 연구'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고성호 교수, 대한신경과학회서 우수발표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까지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대한신경과학회가 주최한 '3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SEMA-3A determines the fate of neural stem cells after cerebral infarction'라는 논문으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임한웅 교수, 대한안과학회서 구연 및 비디오 학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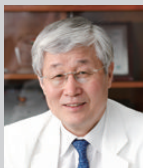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가 지난 11월 1일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안과학회 추계 학

술대회'에서 '근전위술의 3차원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구연상을, 문상원 전임의, 박승호 전공의, 김지홍 전공의와 함께 '안과 프리즘을 이용한 빛의 경로 및 이미지의 재현'을 주제로 비디오 학술상을 수상했다.



최중섭 교수팀, 최소침습수술 학회서 포스터 연재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부인과 최소침습 분과 최중섭 교수팀(배재만, 이원무, 정언석, 고아라)이 지난 11월 1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대한신부인과 내시경 최소침습수술학회'에서 '단일수술실에서 부인임환자에 대한 좌측 신장맥 높이까지 복강경 대동맥주우킴프 절절제술: 10년동안의 단일수술팀의 수술적 기법과 성과'로 포스터 연재상을 수상했다. 또한 최중섭 교수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국제부인임학회에 초청되어 '난소암에서 복강경 수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준용·김이석 교수, 중국 하북대학교병원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비

뇨기와 이준용 교수와 정형외과 김이석 교수가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하북대학교병원 학술대회에 초청받아 '로봇복강경 수술과 정형외과 수술의 최신지견'

에 대해 강연했다. 본원과 하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교육, 학술, 의학기술 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학 교류를 하고 있다.



이영호 교수, 국제제대혈학회 초청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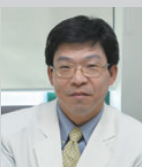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가 지난 11월 16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제대혈학회

에 초청되어 '난치성 신경계질환 아이들에 대한 제대혈 및 말초혈 단핵구 세포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호진 교수, '한마음회'로부터 감사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지난 11월 20일 본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개교 제8주년 기념식' 및 '제23회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자선의 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김희태 교수, 세계 파킨슨병 및 운동장애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희태 교수가 지난 11월 30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제4차 국제 파킨슨병 및 운동장애학회'에 초청되어 '인지장애와 행동장애를 주제로 강연했다.



직업환경의학과 보건관리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상금 기부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보건관리팀원들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주최한 '건강나눔 도심건기' 프로젝트에서 받은 상금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기부했다.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3D 모션 게임을 개발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성호 교수팀의 진료과는 무엇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한양토픽]을 참고하세요. 1월 말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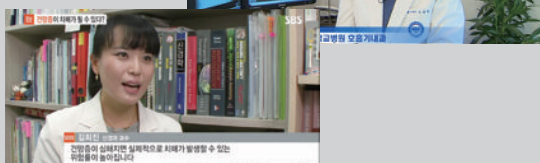
<http://goo.gl/TrScIi>

11+12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던킨도너츠와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서선* yesi****@hanmail.net
정정* jjingx****@hanmail.net
김철* dafi****@naver.com
방윤* yh1****@hanmail.net
유지* myfir****@hanmail.net
유지* graceful****@hanmail.net
강수* suhee****@hyumc.com
김아* kimar****@naver.com
김성* leo0****@nate.com
김봉* 7vort****@hanmail.net



한양대학교병원

- 하태경 외과 교수** 11월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위밴드수술 부작용 환자의 수술
-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11월 27일/ KBS 2TV [여유만만]/ 중년 여성의 관절 바로잡기!
-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11월 24일/ KBS [아침뉴스타임]/ 심폐소생술과 사망선고
- 이향락 소화기내과 교수** 11월 21일/ KBS 1TV [소비자 리포트]/ 긴급점검 위밴드수술 실태, 11월 8일/ SBS [모닝와이드]/ 백색유혹! 밀가루가 비만의 원인?
- 김상현 호흡기내과 교수** 11월 20일/ MBN 뉴스 [건강골루션]/ 기관지 확장증, 11월 18일/ KBS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궁자궁한 콧물과 기침, 비염과 천식
- 김희진 신경과 교수** 11월 10일/ SBS [모닝와이드]/ 꼭꼭 씹어라 뇌건강이 보인다, 10월 12일/ SBS [8시 뉴스]/ 치매 치료 효과 높여려면, 꾸준한 생활습관 중요
- 김태곤 재활의학과 교수** 10월 29일/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손과 손목 통증
-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10월 21일/ KBS [뉴스 7]/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10월 16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 어깨가 한 짐! 어깨는 고 싶다
- 김근호 심장내과 교수** 10월 14일/ KBS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심이 큰 병
- 원대 신장염
- 오기욱 신경과 교수** 10월 9일/ MBC [나누면 행복]/ 루게릭병
- 김영서 신경과 교수** 10월 6일/ MBN [천기누설]/ 약이 되는 제철과일, 뇌졸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11월 5일/ KBS [9시 뉴스]/ 모션게임으로 재활 치료
- 최호진 신경과 교수** 10월 31일/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사랑과 우정 사이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 이규호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11월 19일/ YTN [사이언스 You Are A 닥터]/ 어깨통증
-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10월 17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 갑작식 척추염, 10월 14일/ SBS [8시 뉴스]/ 조기진단이 중요, 의심 증상 체크하세요
-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10월 11일/ EBS [명의]/ 남성을 위협하는 질환, 통풍



한양대학교병원

- 이향락 소화기내과 교수** 11월 30일/ 한국경제/ 연말 술, 가슴 쓰리고 구토 잦으면 역류성식도염 의심, 10월 27일/ 중앙일보/ 식도암 발병 30배 키운다는 '바렛 식도' 아시나요?, 10월 25일/ 조선일보/ 신해철 중환자실 상태 위중, 원인은 장협착 수술 잘못된 것, 10월 1일/ 조선일보/ 속쓰림, 궤양의 주범? 위산은 죄가 없다
- 임영호 심장내과 교수** 11월 20일/ 조선일보/ 심폐소생술 위치, 나이 따라 달라야, 11월 17일/ 매일코노미/ 당뇨, 고혈압 관리 필수 '심장마비' 5분 이내 심폐소생술 받아야
-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 11월 18일/ 매일경제/ 고령인구 늘면서 감염자 증가 '시디프 박테리아'를 아시나요
- 김승현 신경과 교수** 11월 14일/ 경향신문/ 세포치료센터, 루게릭병 등 난치성 질환 전문 치료
- 박성열 비뇨기과 교수** 10월 22일/ 조선일보/ 특 쓰는 약취 나면 방광염, 검붉은색 피면 콩팥 이상
- 정민성 외과 교수** 10월 1일/ 조선일보/ 매일 콩 35g 먹고, 운동 30분 하면 유방암 발병률 절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교수** 11월 27일/ 동아일보/ 이문동이 둔 가정, 허리 휘는 난임치료 건보적응을
- 심재항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10월 15일/ 동아일보/ 디스크 수술? 엄지발가락 흔자 움직일 수 있다면 하지 마라
-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교수** 10월 13일/ 후생신보/ 신경발달클리닉
-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0월 13일/ 중앙일보/ 돼지발 알레르기, 서울이 포천보다 50배 독해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10월 13일/ 동아일보/ 콧속 찌르는 발가락 통증, 알고보니 '고요산혈증'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4년 10월~2014년 11월 기부자 명단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등문	김기찬	김기찬내과	교수	김석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궁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셀인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유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화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차경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교직원	김선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영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성광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미영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채선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강보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선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남정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명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미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채숙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노광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성안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성익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천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채영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강연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성애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노만희	노만희정신과의원	교직원	성외순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국장	윤영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장유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근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영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소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정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원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일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도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강영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수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노정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손유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재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오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숙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류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손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정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재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선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은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류미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손한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윤창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지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순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춘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승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상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규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윤현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전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고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솔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은창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전석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재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병원장	고용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애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문영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송태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음희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선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정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양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혜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현주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교직원	전영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정희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교직원	김양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기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송혜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전재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한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곽혜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영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명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수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전종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곽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영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수진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이경하	해남해민병원	교수	전준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하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구신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김용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순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형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하루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국은영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김용호	김용호정신과의원	교직원	박미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신인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희래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한동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권난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우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미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금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경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한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은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선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대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미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한현수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	권성준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김지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교직원	박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심경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도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수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등문	허윤석	분당지상정신과의원				
교직원	권순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성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심규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명희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정승원	삼배한이비인후과	교직원	홍경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박시복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교직원	심명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옥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영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은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심요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민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유정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홍성우	홍성우피부과의원				
교직원	권오교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김정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재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이석환	이석환 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정은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은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경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정하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안정경	안정경내과	교직원	이선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등문	정자현	정자현내과	교직원	홍은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경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종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창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숙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정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의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등문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	교직원	김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주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혜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소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정진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홍정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지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주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애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소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황미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김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양광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슬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정찬호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실장	황성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김금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진웅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장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승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대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황세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김금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찬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이승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정혜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윤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기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진순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원장	박총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엄기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아람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가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의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기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창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헌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엄홍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양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경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인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나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창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혜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여광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등문	이용섭	푸른이비인후과 의원	교직원	조광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인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나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춘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박환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여은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용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기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대성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교수	김충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희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염일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우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문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대희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직원	김택순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반재용	바노바기피부과	교직원	오기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미행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두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김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방성주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수	오동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지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조상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영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병원장	배상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수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성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영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배영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연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아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영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창	한양대학교병원	국장	백근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등문	오영배	한양내과의원	교직원	이제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영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영윤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백두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영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미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명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재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미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유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주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주연	한양대학교병원	등문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교직원	김민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초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홍석	용인정신병원	교직원	이주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화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백희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희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지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화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서서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우준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이창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현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병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희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국장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원홍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창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봉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희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서정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유교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봉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희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서진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유창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혜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주미선	한양대학교병원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Culture Calendar



1
January

1.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독주
-이명환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



1.9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해외여행과 감염질환
-김지은 교수
오후 3시
구리보건소 지하 1층

1.9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현악연주-전혜민 외 2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1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비엔나국립대학
-안명진(바이올린) 외 8인
오후 2시
본관 1층 로비



1.2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색소폰 연주-원오섭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24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연하장애 관리
-재활의학과 김태곤 교수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1.3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에벤에셀 합창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2
February

2.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내일 콘서트-황재경 목사
-Grace Christian College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



2.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에다미-김정웅 지휘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2.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손목통증의 흔한 원인 및 치료
-이정일 교수
오후 3시
구리보건소 지하 1층

2.1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구리기타 앙상블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2.2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국민챔버-오케스트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2.2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구리문화예술단체-7080 콘서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2.28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최신 치료 및
언어치료-김승현 교수,
박은영 치료사
오전 9시 30분/본관 3층 강당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창홍 함준수 최호순 윤병철 이오영 전대원 이항락 이강녕 두은영 안용우 유기덕 김영택 이강원	월, 화, 수, 목, 금 수, 금, 토 (1주) 월, 목 월, 수, 토 (3주) 월, 화, 목, 토 (2주) 금, 토 (4주) 화 목 월 금 토	월 목 월 수 목 수, 금 화, 금 월, 목 수, 금 화	간질환 간질환, 담체장질환, 위장질환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식도, 위, 장 식도, 위, 장 식도, 위, 장 식도, 위, 장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임현길 김경수 신진호 임영호 이형탁	월, 목 화, 목, 토 (2주) 월, 수, 금 수, 금, 토 (13주) 월, 수, 금 수, 금, 토 (13주)	월, 수 화, 금 수 월, 목 수 월, 목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장조기세포치로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심혈관 중재술,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일반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강종명 김근호 이창화 박준성 오일환	월, 화, 수, 금 월, 금, 토 (34주) 수, 목, 토 (2주) 화, 목, 토 (3주) 금, 토 (24주)	화, 목 월, 금 월, 수 화, 수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일반 신장내과질환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 대사내과 2290-8300	안유현 최종환 김동선 박정환	월, 화, 수, 목, 토 (2주) 월, 화, 수, 금, 토 (3주) 월, 수, 목, 토 (4주) 화, 토 (4주)	수 월, 화, 금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일반 내분비대사 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박성수 신동호 윤호주 손장원 김상현 박동원 이지영	화, 수, 금, 토 (1주) 토 (3주) 월, 수, 토 (4주) 월, 화, 목, 토 (2주) 수, 금 목	월, 화 화, 수, 목, 금 수, 목 월 금	폐암, 폐결핵, 급성폐손상, 폐섬유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폐결핵, 폐렴, 폐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박병배 이준호	월, 수 화, 목 월, 화, 수, 금	화, 수, 목, 금 월, 금 목, 금	혈액질환, 골수이식, 고형암 고형암, 림프종, 혈액질환, 골수이식 혈액종양 질환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신재훈 오성희 김남수 이영호 김용주 박현경 이현주 이경석	화, 목 수, 목, 토 (2주) 목, 금 월, 수, 금 월 (구리), 금▲ 월, 화, 수, 토 (3주) 화 토 (3주) 화, 금, 토 (4주)	월, 수, 목, 금 월, 화 월, 화 화, 수, 목, 금 수, 목 화, 목 수, 금 목, 금 목, 금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소아내분비질환 소아감염질환 소아심장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소아소화기영양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호흡기알레르기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이현주	월 수, 목, 금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로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김승현 김희태 김현영 김희진 김영서 오기욱 강석재 박진석	월, 수 월, 금, 목, 토 (1주) 화, 수 (이상운동장애) 목▲ 해, 외 화▲, 금, 토 (2주) 화, 목, 토 (3주) 월▲, 금▲, 토 (4주) 금, 토 (2주) 화, 토 (1주)	월, 수 월, 목, 금 화▲, 금, 토 (2주) 월, 목 월▲, 수 화 금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연 수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이상운동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남정현 안동현 김석현 오동훈 조성진 이동준	월, 목, 토 (2주) 수, 토 (5주) 화, 금, 토 (2주) 월, 목, 토 (13주) 목, 토 (4주) 월	월, 목 월, 수, 목 화, 금 수, 목 월, 화 목	사회정신의학, 성폭력상담, 정신분열증, 치매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인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일반정신과질환 소아정신의학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고주연 김정은	월, 금 화, 목, 토 (24주) 월, 수, 토 (135주)	월, 금 화, 수 목, 금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경계조직 질환, 피부암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지균성 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권오정 이경근 최동호 이강홍 정민성 하태경 안병규 이주희	수, 금 월 화, 금 수, 목 수, 목 목, 토 (2주) 화, 토 (1주) 월, 토 (3주) 토 (4주)	수 목 월 화 화, 목 목, 수, 금 수, 금 월, 금	위, 십이지장질환 이식, 혈관질환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복강경로봇수술, 비만대사수술, 복강경혈관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위암, 상부위장관, 복강경로봇, 외과질환 및 탈장수술, 비만대사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 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강정호 김영학 정원상 김 혁	월, 수, 금 화 화, 목 화, 목, 수	화, 금 화, 목 화, 목, 수	폐, 종격동 및 식도외과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이광현 최충혁 성일훈 강창남 이봉근 김이석 황규태 이진규	토 월, 수, 금 월, 수 화, 목, 토 (13주) 월 목 화, 목 화, 금 토	목, 금 수 화 월, 수 화, 목 목 목, 금 월, 화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031－560－2114 ■ **응급실****：**031－560－2050 ■ **전화예약****：**1577－9382 ■ **진료의뢰센터****：**031－560－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오석전	목	화	뇌종양, 척추질환 (요추디스크, 경추부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수종양)
	고 웅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화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이형중	월, 수, 토(3주) 금	금 수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토(2,4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변형수 한영훈		수 금	일반 신경외과 질환 일반 신경외과 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산전성 열공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윤진호 김연환	월, 수 화, 목, 토(3주)	화, 금 화	비만성형,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장 미용성형(코)나, 피부미용, 액취증, 안면부 외상
	안웅수	토(2,4주)	월, 목	
산부인과 2290-8400	김경태 조삼현 황정혜	화, 목 월, 수 수, 금	화 수 월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복강경수술 일반 산부인과, 자궁암, 유방암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최중섭	월, 수, 토(5주)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2주)	수, 목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고아라 정언석	토(4,5주) 금, 토(1,3주)	수, 금 월	일반 산부인과 일반 산부인과
안과 2290-8570	임기방 이병로 송인석 임한웅 문상원 이주향	월, 수 화, 목, 토(3주) 금, 토(1,3,5주) 금, 토(2,4주) 토	금 목 월, 화, 수 월 화	녹내장, 백내장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일반 안과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미숙아망막, 일반안과질환 안성형, 기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김경래	화, 금, 토(1주) 목, 토(2주)	화 월, 목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인면신경마비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태 경	월,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조석현	화, 금, 토(3주)	화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월, 토(4주)	월, 수,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성의숙	수, 토(5주)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박 건	목	수	일반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토(1주)	화, 목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박해영 김용태 박성열	수, 금, 토(2주) 화, 목, 토(4주) 화, 토(3주)	월 수 월, 금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전립선·신장·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 신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김태곤	월, 수, 금, 토(4주) 화, 목, 토(1주) 월▲	월, 수 화, 목(3주, 금) 화, 목(3주, 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루게릭클리닉(서관 7층 세포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이명자 전하정	월, 목 월~금	월, 목 월~금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핵의학과 2290－9260	최운영 김지영	토(1,3주) 토(2,4주)	수 월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황경균	목, 금 월, 화, 목	월, 화, 목 월, 화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턱알굴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매질환, 코골이장치 연 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창주 한지영 임재중 김태건 전재윤	해 외 월~금 월~금 월, 화, 수, 금 월	외 월, 화, 금 월, 화, 목 월, 화, 수, 금 월, 화, 목,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사립니발치 턱알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심광섭	월, 화, 금	수	스포츠의학
	박훈기 황환식 박석원	월, 수, 토(2주) 화, 목, 금, 토(4주) 월	목, 금 월 화, 수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송재철 이수진	월, 화(2,4주), 목 화(1,3,5주), 수, 금	월, 화(2,4주), 목 화(1,3,5주),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배상철 전재범 김태환 성윤경 최찬범	월, 화, 목 월, 수, 목, 토(2주) 화, 수, 금, 토(2주) 화, 목, 토(1주) 월, 화, 수, 금, 토(3주) 월, 수, 금, 토(3주)	화, 수 월, 목 목, 금 월, 화, 목 수 수,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성인형소탈병, 근염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경피증, 통풍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3주) 월, 화, 목, 토(2주)	월, 수 화, 목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종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이진규	화 목		전주관절 화진근기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건관절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고 웅 박훈기 황환식 박석원 김정현	화, 수 월, 수 화, 목 금	화, 수 월, 수 화, 목 금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뇌종양, 척추질환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정태 김연환	월, 목 화, 금	수, 금 목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장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한동수 전용철 은창수 유교상 김태업 변영재 김신민 노영욱 정종관 김지연	화 월, 목 월, 금 수, 금 수, 금 목, 토(1,3주) 토	월, 목 화 수 월 목 화, 수, 금 금 수 수 월 화	각종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대장질환(만성궤양성 대장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간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560－2220	김순길 최성일 박환철 신정훈	월, 화, 금 목 화, 수, 토(3주) 토(2,4주)	목 월, 수, 금 화 월, 화,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부정맥질환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신장내과 560－2220	김호중 한상웅 이주학 윤해진	월, 화, 목 월, 수, 금 화, 목, 토 수	월 화, 목 수 금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고혈압, 혈뇨, 신장염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
내분비내과 560－2220	박용수 이창범 홍상모	월, 금, 토(3,4주) 수, 목, 토(2주) 월, 화	화, 목 월, 수 월, 수,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일반내분비
류마티스내과 560－2220	이혜순 방소영	월, 수, 목, 토(3주) 수▲, 목▲ 화, 금, 토(2,4주)	화 수, 목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560－2220	김태형 문지용	월, 수, 토(1,3주) 화, 목, 금, 토(2,4주)	화, 목 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혈중내과 560－2220	최정혜 원영웅	화, 목, 토(2, 4주) 월, 수, 금, 토(3주)	월, 수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월, 목, 토(2,4주)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창렬 오재원 문진화 이영호 이경석	화, 수, 금, 토(4주) 월, 화, 목, 토(3주) 월, 수, 금, 토(2주) 월 토(1주)	화, 금 화, 목 월, 수 수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신경 소아혈액종양 소아호흡기
신경과 560－2260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고성호 최호진 임형균	월, 수, 목 월, 수, 목 월, 화, 목, 토 화, 수, 금	월, 수 월, 수 목 금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뇌전증, 수면장애
정신건강 의학과 560－2270	박용천 김대호 최준호	월, 목 화, 목, 토(3주) 월, 수, 금, 토(2,4주)	월, 목 월, 화 수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PTSD, 불안장애, EMDR 신경영양학,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외과 560－2320	김종현 김재민	월, 금, 토(2주) 수, 목, 토(3주)	수 월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류제일 최규선	월, 토(4주) 화, 수, 토(1주)	화, 목 금 월, 수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척추질환, 척수종양, 두부외상 두부외상, 척추질환, 통증, 일반신경외과 질환
흉부외과 560－2300	이철범 노선균 남승혁	월, 목 화 수, 금	월, 수 화, 목 금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심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560－2310	김영호 박태수 박예수 김종현	월, 수, 금 화, 목 수, 금, 토(주) 목, 토(2주)	수 화, 목 월 화,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인공관절, 관절경수술)
	박기철 이정일	화, 토(3주) 월, 토(4주)	목, 금 월, 금	사지말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이정환 고아라	월, 수, 금 화, 목	수 월, 목 화, 금	내시경수술, 불임, 부인질환, 산과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산과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성형외과 560－2330	최승석 이장현 류재만	월, 금 화, 목, 토 수	수 화, 목, 토 화, 금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악안면 및 미용성형 일반 성형외과질환
외과 560－2290	남영수 박원겸 김한준 김민규 최민영 윤정아	월, 수 화, 목 화, 금 화, 수, 금 금 목	목 목 화, 수, 금 월, 화 월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간담체질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유방, 갑상선질환
안과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560－2350	성만철 강민호 임한웅	수, 금 월, 화, 토 월, 토(1,3주)	월, 수 화, 금 수, 목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굴절, 백내장 안성형, 사시, 백내장, 눈물길, 안와골절
피부과 560－2280	유희준 김정수 백준오	월, 화, 금 수, 목, 토 화	화, 목 월, 수 수, 금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일반 피부과질환, 피부미용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정진혁	월, 수 화	목 화, 금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자용배 정재호 오재호	월, 수, 토(2주) 목, 토(3주) 화, 토(4주)	수 월, 수 목,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비부비동내시경,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소아이비인후과
	신명철	금, 토(1주)	월, 화	알레르기비염, 일반·소아이비인후과
비뇨기과 560－2370	최홍용 문홍상	화, 목 수, 토(2,4주)	목 월,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 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3주)	화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재활의학과 560－2380	장성호 한승훈 조영필	월, 화, 수▲, 금 수, 목 목▲, 토(3주)▲	월, 수 화, 수▲, 목 목▲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근골격계, 소아재활, 뇌질환, 스포츠 재활
치과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3,4주)	수 목, 토(2주)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560－2660	김윤영	화, 금, 토(2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560－2095	심재향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560－2730	김영환		화	종양핵의학
영상의학과 560－2320	오지영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 시술

* 2014년 12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암 환자를 위해 뭉치다

환자 중심의 다학제적 진료시스템 구축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암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다학제적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암센터 내에는 간암센터, 갑상선종양센터, 근골격계종양센터, 뇌/척추종양센터, 대장암센터, 두경부종양센터, 부인종양센터, 비뇨기암센터, 소아암센터, 식도암센터, 위암센터, 유방암센터, 췌장담도암센터, 폐암센터, 혈액암센터 등 15개 세부 진료 센터가 개설되어 있으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암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의료진 모두는 다학제적 진료시스템과 최신의 치료 방법을 통해 암 환자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